자활읽기

2016
no.19

스페셜
함께 살아가는 삶의 파트너
자활사례관리

우리 센터를 소개합니다
6개 신규 지역자활센터 개소

정보 플러스
빈곤층 자립지원,
제3회 자활복지 국제포럼

9 772288 044007 19
ISSN 2288-0445

중앙자활센터

그대가 짠 스웨터
잘 입고 있답니다

입고, 벗을 때마다
정전기가 어찌나 심하던지
머리털까지 쭈뼛쭈뼛 곤두서곤 합니다

그럴 때면 행복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매 순간 순간마다
뜨거운 그대 사랑이
내 몸에 흐르고 있음이
몸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겨울 편지〉 - 김현태

자활읽기

2016 no.19

Contents

스페셜

04 자활사례관리
함께 살아가는 삶의 파트너 자활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현장을 가다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자활★새로운 시작

10 좌충우돌 성공기
희망의 메시지 안고 다시금 발돋움하다

12 옆집 언니가 알려주는 자활
의료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14 퇴근길 상담소
어느 날 내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가 뜬다면?

16 고수의 비법
장인정신 담은 자활사업,
희망으로 비상하다
인제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낭구소리' 박영식 명장

18 자활읽기가 알려주는 팁(Tip)
'보도자료' 보도되게 쓰고,
'보도사진' 보고 싶게 찍는 법

자활★행복 징검다리

20 우리 센터를 소개합니다
2016년, 지역자활센터 식구가 늘었습니다
6개 신규 지역자활센터 개소

24 정보 플러스
빈곤층 자립지원, 제3회 자활복지 국제포럼
인터뷰 : 마이클쉐라든 교수

자활★희망 꿈

28 착한 일터
삶의 발판이 되어주는
편의점 사업 'CU 새싹가게'

30 희망을 부탁해
호주에서 만난 자활사업
최우수기관 해외연수

32 #건강
건강한 겨울나기

34 카툰
희망키움통장Ⅱ

36 메모 톡톡
겨울철 면역력 높이는 음식
옐로 푸드가 답이다!

38 이모저모
중앙자활센터 NEWS

39 별지
신년카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자활읽기〉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자활읽기〉는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www.cssf.or.kr) ···› 소통마당
···› 홍보자료실에서 e-book(전자책)과
PDF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ISSN 2288-0445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자활읽기〉 통권 제19호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심성지 **담당자** 한보라 **발행처**(재)중앙자활센터 ⓣ 02-3415-6900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155 해암빌딩 2층 **www.cssf.or.kr**
디자인·인쇄·제작 동아이앤디 ⓣ 02-2020-1760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의 자료는 중앙자활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외부 필자의 글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한보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파트너, 자활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는 빈곤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 분들이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고용 통합 서비스이다. 2016년 자활사업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자활사례관리의 현재를 살펴보자.

자활사례관리 왜 필요하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가정폭력, 알콜중독, 영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민간·공공 조직 간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합니다.

자활사례관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1:1로 연계해, 근로 기회를 갖거나 근로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경제적 자활자립 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 **심리·정서적 안정 및 강화로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 회복**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중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연계되어 추진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정책 수립, 전체 지원 기관 규모 조정
- **지자체** : 사례관리실시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
- **중앙자활센터** :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례관리 품질 관리
- **지역자활센터** : 사례관리 계획 수립, 직접 수행

직접 자활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에는 게이트웨이 담당자, 사례관리 담당자, 희망·내일키움통장 사례관리 담당자를 중심으로 '자활사례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기별로 어떤 지원을 하나요?

자활사업 참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립·자활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인테이크(참여 단계)	사정 단계	계획 수립 단계	실행 및 점검 단계	평가 및 종결 단계	사후관리 단계
주요 과업	▸초기 상담 ▸자활사업 참여 여부 결정	▸게이트웨이를 통한 욕구 확인 – 취·창업 욕구 등	▸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 (IAP, ISP 작성)	▸자활 프로그램 발굴 연계·모니터링 ▸복지 서비스 및 자원 연계	▸자활목표 달성 등 평가 ▸종결과 사후 관리 여부 판정	▸서비스 연계 ▸취·창업 모니터링
기간	3개월(게이트웨이 과정)			3년(사업단 및 취업 지원)		최대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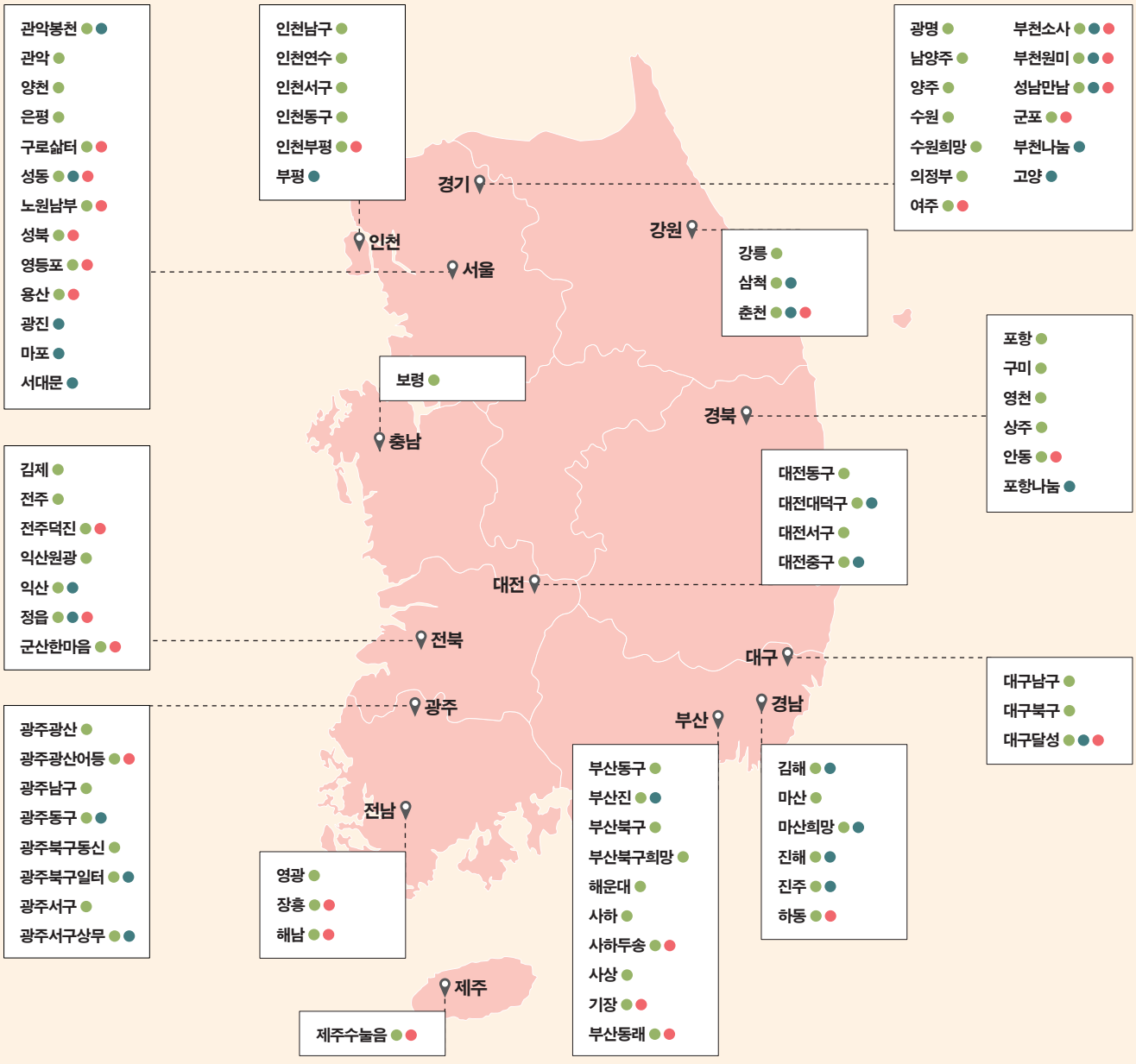
2016년 추진 현황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자활사례관리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취업 우선 지원 사업 실시 지역을 중심으로 '자활인큐베이팅'을 도입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및 인큐베이팅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국 77개 자활사례관리 지원센터, 27개 자활인큐베이팅 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실시기관

범례
- 시도
- 자활사례관리 지원센터
- 자활인큐베이팅 지원센터
- 2016년 신규기관



글·사진 한보라

자활사례관리 현장을 가다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실제 자활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떠할까.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자활사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선경 센터장, 최승진 과장,
유인화 실장, 중앙자활센터

김 김선경 센터장
유 유인화 실장
최 최승진 과장

현재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 우리 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는 약 120명 정도 되는데 사례관리를 위해 사례관리팀장(최승진 과장)을 중심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 사례관리자, 게이트웨이 관리자가 한 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간 100여 시간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최 저는 2007년 센터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담당자로 입사했습니다. 2011년 사업이 없어지면서 고용이 단절될 위기가 있었는데, 마침 사례관리 사업이 연계되면서 담당자로 전환배치되었죠.

유 최 과장은 2013년 센터 TO가 있을 때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좀 더 책임감 있고, 역량 있는 분이 사례관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김 처음엔 센터 TO로 있는 과장을 사례관리자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급여 차이가 크다 보니 고민이 많았어요. 그 차이나는 부분을 센터 자부담으로 충당해주고 있는 중인데, 그만큼 집중해서 사례관리를 해야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사례관리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사례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 사례회의는 내·외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오후 2시에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례관리팀, 사업운영팀, 자활근로, 바우처 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실장, 센터장님이 다 같이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신규 참여자들의 사례 판정, 게이트웨이 참여자들의 IAP/ISP 조정, 기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함께 다루고 있죠.

유 참여주민 한 명을 보고 각 사업별, 팀별로 생각하는 부분이나 자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외부적으로는 광역자활센터에서 외부 전문가(방미나 소장님)을 모시고 돌아가면서 슈퍼비전을 받는 회의가 있어요. 센터별로 사례를 보고하고 동료들이 서로 슈퍼비전을 주고받는 자리이지요. 또한 대전지역에는 광역단위별 사례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자립·자활에 대한 사례가 생기면 회의에 참석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관리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 우리 센터는 가족의 기능을 바로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2009년부터 3년 동안 모금회에서 가족 기능 강화 테마로 지원받아 창작연극, 리본(Re-born)쇼 등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개선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 여러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사례에 맞춰 자원연계 방법들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와 연계해 B형간염, 결핵 등을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기관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김 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갈수록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며 맞춰가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음악을 통해 감정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화합을 맞춰나가는 '합창'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 시도해볼까 합니다.

최 예전에 알코올중독자분들과 손가락 인형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 순서에 맞추어 인형극에 참여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었지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것에 대한 훈련과정들을 거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 주민분들에게 생활의 변화를 주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향후 사례관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요?

최 최근 센터에 오는 대상자를 보면,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활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작업을 제대로 해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와 치료 대상자를 분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 전국에 사례관리를 잘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례들의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의 풍부한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실천사례집'을 만들어 다른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례관리를 확대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돼요.

유 사례관리는 문구로 일원화하여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묻어나오는 실제 이야기잖아요. 이러한 사례관리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가 정기적으로 생기면 좋겠어요.

글·사진 한보라

수퍼바이져 인터뷰

★ MINI INTERVIEW ★

방미나 소장(나우심리상담센터)

• 나우심리상담센터
심리내적인 불편함이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9 매트로존빌딩 418호

H www.nowcoun.co.kr
T 042-471-3341

자활센터에서 일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수퍼비젼을 제공하는 방미나 소장

Q 어떤 경로를 통해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수퍼비전을 제공하게 되었나요?

A 서구지역자활센터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참여주민 교육과 사례관리 수퍼비전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례관리 담당자, 기관 중간관리자, 수퍼바이져가 모여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지요. 대전광역자활센터에서는 정기 수퍼비젼(월 1회)으로 오픈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사례에 대해 지역 내 자활센터 사례관리자와 논의하며 학습 및 수퍼비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Q 자활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사례들이 의뢰 되나요?

A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난감한 사례들입니다. 대부분 상위단계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례인데요. 정신장애로 의심되거나 중독, 양육환경의 제약이 있는 경우, 개인의 성격적 기질이나 대인관계 미숙 등 사업단에서 갈등이 드러나는 사례가 의뢰되는 편입니다.

Q 수퍼비전 과정 중에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시나요?

A '어디까지가 자활사례관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례관리를 '참여주민 관리'로 오해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례관리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자활사업을 시작하면서 종결하는 전체 경로에 개입하는 서비스 관리 과정이지요. 개별기관의 자원과 네트워크 체계에 의뢰하고 중개하는 간접 실천영역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종결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민·관 복지지원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개 또는 의뢰하는 방식으로 2차 지원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자활사례관리’와 일반 사례관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A “일과 급여를 제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자활사례관리만의 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과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동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실무자들의 확신이 있어야 주민을 만날 때 자신감을 갖고 다가갈 수 있답니다.

Q 끝으로 전국에 있는 사례관리자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연료가 떨어졌다고 여길 때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start-up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출발선이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꾸준한 동료 수퍼비전을 통해 소진보다 성장하는 에너지를 받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참 여 주 민 인 터 뷰

★ MINI INTERVIEW ★

이성천 총무이사(행복물류산업협동조합)

Q 센터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A 제가 건설업을 했었는데, 지난 97년 IMF때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식당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갔는데, 버는 대로 빚을 갚다보니 집안이 엉망이었죠. 그러다 아내 고향인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마땅히 일할 곳이 없었는데 서구자활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2011년 3월경 센터에 오게 되었어요. 처음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정부양곡배송사업단을 만들었지요. 그때 인원이 7~8명 정도 되었는데, 2년 동안 사업단을 거쳐 2013년 정부양곡배송 자활기업으로 나갔어요. 현재 4년째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Q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A 센터에서 처음 만난 분이 지금의 센터장님(김선경 센터장) 이었어요. 그때는 실장님이셨는데, 자활센터가 뭔지 자활기업이 뭔지 몰랐던 저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센터에 오기 전에 앞니, 어금니가 다 없어서 잘 먹지를 못했어요. 센터에서는 치과와 연계하여 임플란트 7개를 해 주었는데, 정말 뿌듯했죠. 부도가 났을 때 세금, 빚 이런게 복잡해서 파산을 못했어요. 센터에서 법률전문가를 소개시켜준 덕분에 약 1년에 걸쳐 파산도 하게 되었죠. 센터를 만나지 못했다면 엄두를 못 낼 일이었어요. 제가 자립할 수 있게끔 센터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죠.

체계적인 자활사례관리로 자립에 성공한 이성천 이사

Q 앞으로 이사님의 바램은 무엇인가요?

A 올해 7월부터 청소업종을 추가했는데,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싶어요. 또한 자활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센터에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분들을 저희 회사에 취업시켜 수급자를 탈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글 손희정 · 사진 산청지역자활센터

호주에서 열린 '경남 농식품 전시·홍보 판촉전'에 참가한 산청지역자활센터

희망의 메시지 안고 다시금 발돋움하다

산청지역자활센터의 호주 진출 이야기

지역자활센터의 첫 해외 진출이라….
산청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의 호주 진출 소식에 매스컴 반응이 뜨거웠다. 자활센터는 경상남도 산청군 행사에 운 좋게 함께 참여했을 뿐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활상품을 내걸고 판촉전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자활센터 사람들을 만나 해외 첫 진출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해외 진출 그리고 도전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자활센터에는 호주에서 열리는 '경남 농식품 전시·홍보 판촉전'에 산청군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이러한 낭보는 자활센터의 노력 뿐만 아니라, 수출협회와 각 지자체 유통부서, 호주 한인회 등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상품의 해외 진출이라니! 호주 진출 소식을 접한 자활센터 직원들은 그동안 상품 개발을 위해 눈코뜰 새 없이 보내온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 고조된 분위기는 지난 8월 호주 퀸스랜드주 브리즈번시티 킹조지광장에서 열린 판촉전에서도 이어졌다.
수출상품으로 산청의 대표 특산품인 홍화씨(100개)와 허브차(홍화꽃잎 200개/국화꽃잎 200개) 등 약초를 이용한 특색 있는 제품을 선보였는데,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홍화꽃잎과 국화꽃잎차를 맛본 교민과 현지인들은 제조 과정, 맛있게 먹는 방법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국화꽃잎차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티포트에 예쁘게 우러나는 국화꽃잎이 현지인들 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후문이다. 또 이날 판촉전에서는 약초를 이용한 김밥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 여러 가지 체험행사도 함께 열려 즐거움을 더했다.

김점숙 산청지역자활센터 실장은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한국 음식, 한국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며 자활상품을 설명해주었다"며 "한류 열풍 덕분에 무리 없이 한국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어 뿌듯했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호주나 일본, 중국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곳에 이런 판촉전을 열면 꽤 성공적일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첫 해외 진출 치고는 성공적이었지만, 자활센터 직원들은 좀 더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기도 했다. 외국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출품 반입에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인기 좋은 홍화씨막걸리, 홍화씨액상차 등을 선보이지 못해 무척 아쉬웠다"며 "앞으로 수출이 활성화된다면 좀 더 다양한 상품군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활센터도 경쟁력 있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보았습니다"

산청지역자활센터의 자활상품 '홍화꽃잎차'와 '국화꽃잎차'

새로운 판로 개척에 희망 안겨준 호주

호주 판촉전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자활상품 홍보가 잘됐거나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은 물론 앞으로 자활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더 현실적으로 진단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판촉전을 통해 자활센터 직원들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다. 직원들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곳에서 신사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수출에 대한 통관 지식이나 유통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으면 자활센터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엿봤다"고 입을 모았다.
자활센터는 그저 어려운 곳이라고 바라보는 외부 시각, 지자체로부터 턱없이 부족하게 받는 지원비는 자활센터의 자생력을 잃게 만드는 악순환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호주 판촉전은 '새로운 길'에 대한 꿈을 안겨주었고, 지자체의 수출 담당 부서 및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큰 성과를 올렸다.

노준석 산청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호주 판촉전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기업들과 연결고리를 갖게 된 점이 얼마나 큰 소득인지 모른다"며 "산청자활센터의 상품성을 인정받아 호주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상품이 좋다는 것을 아는 기업들이 하나둘 손 내밀고 있다"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웬만한 상품으로 대기업들이 장악한 국내에서 살아남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일까, 안정적인 판로 개척이 절실했던 자활센터는 우호적으로 다가와 준 기업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여러 상황들에 치여 자활센터의 해외 진출은 당분간 '꿈'으로 머물러 있겠지만, 그 꿈을 찾아가는 여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 안 되면 될 때까지 부딪쳐보자는 패기 넘치는 열정으로 긍정의 힘을 보여줄 자활센터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산청지역자활센터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84
T 055-973-8267~8
상품문의 www.scjahwal.com

정리 중앙자활센터

의료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목돈이 나올까 부담스럽다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옆집 언니가 잘 설명해줄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봐~

2015년 7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새롭게 손질했어. 그동안 흩어져 있던 혜택을 통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한 것인데, 이를 '맞춤형 급여'라고 불러. 맞춤형 급여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지.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제도 중 하나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의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하는데 '의료급여법'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고 있어.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격기준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정리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

자격기준

1종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 중 2종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

그런데 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한다면, 의료급여 지급대상자는 아니지만 '특례대상자'가 될 수 있어~ 특례대상자가 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간은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일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달은 기간산정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해줘.

2017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1인가구	661,172원
2인가구	1,125,780원
3인가구	1,456,366원
4인가구	1,786,952원
5인가구	2,117,538원
6인가구	2,448,124원

그럼 위의 자격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 크게 5가지 혜택이 있는데 쉽게 볼 수 있게끔 표로 정리해줄게~

모두 5가지
혜택이 있어!

요양비 지원	–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 자 중 임신이 확인이 된 자에게 1, 2종 구분 없이 50만 원 지원(다태아 : 7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비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000원 지원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지원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부분틀니 지대치(支臺齒)는 비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별도 등록 없이 지원** – 본인 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

그리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줄게. 이 기준은 급여 청구분에 대한 것이고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줘.

구분	1종		2종	
	입원	외래	입원	외래
1차 (의원)	없음	1,000원	10%	1,000원
2차 (병원, 종합병원)	없음	1,500원	10%	15%
3차 (지정병원)	없음	2,000원	10%	15%
약국	–	500원	–	500원
특수장비 촬영	없음	5%	10%	15%

의료급여 1종은 2종보다
본인부담률이 낮아~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 신청하고 싶다면,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돼.

신청 이후 지자체에서는 소득, 재산 등 통합적인 조사를 하고 난 후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게 되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끝~! 생각보다 간단하지?

언니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하면 도움 받을 수 있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글 양성은(변호사)

어느 날 내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가 뜬다면?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육박하고 경기침체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한다.
어쩌다 큰 돈이 좀 생기면 월세에 병원비에 애들 학원비 등 손가락 사이로 어느새 빠져나가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또다시 빈손이다. 대출, 연체, 강제집행, 압류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2014. 12. 16. '압류 금지 예금·보험금 압류 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보도자료

갑(甲)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 지원금을 받고 있다. 어느 날, 예전에 친척 을(乙)에게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갑(甲)의 기초생활급여 통장을 압류했다. 깜짝 놀란 갑(甲)은 채권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채권금융회사는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고 있다. 그 돈이 있어야 이번 달 생활을 하는데… 갑(甲)은 가슴이 답답하다. 보증채무를 갚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만한 돈이 없는 갑(甲)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압류가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무엇이든지 법원의 판결 등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예금, 보험금 등 금전채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다고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생존권 역시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령에서는 이를 위해 생계 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등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6호, 국민연금법 등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 급여 등과 같이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한 경우는 통장 자체의 압류가 금지된다). 법률에 정한 압류 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96마1302).
이런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압류범위 변경신청' 등)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 등 압류 금지 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 수급자 증명서 등 어려운 생활 형편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형편, 기타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압류금지채권의 압류에 대한 대책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반드시 채무자가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등을 신청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통장의 잔액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둘째** 기초생활급여와 같이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는 이를 이용해 원천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셋째** 보장성보험 계약의 경우는 실효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한다. 만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되는 경우, 해약환급금 중 일부(150만 원 이하만 압류가 금지됨)에 대하여 압류가 될 수도 있다.

법률홈닥터 전국 배치기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제공시간 :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번호	주소 및 기관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복지정책과	02-330-1558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청 3층 법률상담센터	02-3153-8529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동작구청 5층 주민생활지원과	02-820-9612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은평구청 7층 기획예산과	02-351-6290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4나길 72 (화곡동) 강서구청 화곡동 별관 5층 강서희망드림센터	02-2600-6530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신정동) 양천구청 해누리타운 5층 복지정책과	02-2620-3352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종로구청 본관 3층 기획예산과 법제팀	02-2148-1384
8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107 (낙원동) 안성시청 안성시민회관 2층 복지팀	031-678-5438
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청 1층 희망두드림복지상담실	031-481-2592
1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신관 2층 희망복지과	031-590-8721
11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1층 사회복지과	031-980-2660
12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도봉구청 지하 1층 종합상담센터	02-2091-3009
13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9층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상담실	031-645-3855
1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철산동) 광명시청 지하 1층 종합민원실 복지정책과	02-2680-6350
1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 394 효원빌딩 2층(서인천세무서건물 2층) 강화군청	032-932-7179
1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천안시청 8층 기획예산과	041-521-3292
1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내동) 논산시청 1층 원스톱민원과	041-746-6044
18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석남동 18-2) 5층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041-664-1739
19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가오동) 동구청 1층 법률홈닥터실	042-251-6229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 3층 법률홈닥터 상담실	053-666-2667

번호	주소 및 기관	전화번호
21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달서구청 2층 행복나눔센터 행복이음팀	053-667-3541
22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중방동) 경산시청 2층 주민생활지원과	053-810-5925
23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휴천동) 영주시청 2층 기획감사실	054-639-6059
24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감전동) 사상구청 7층 희망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51-310-4317
25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대연동) 남구청 6층 주민지원과	051-607-4317
26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산정동) 울산광역시청	052-229-2288
27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청 나동 5층 법률홈닥터실	061-749-3394
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농성동) 서구청 5층 사회복지과	062-360-7039
29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주월동) 남구청 7층 감사담당관실	062-607-2242
30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 (금호동) 속초시청 속초시사회복지회관 3층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033-639-2632
31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0 (예장동) 3층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45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간석동)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503호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032-437-7432
3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68 (권선동) 1층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070-7878-9365
3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복대동)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3005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043-238-0843
3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흥동) 대림빌딩 805호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042-226-3711
36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27 (외동) 김해시보건복지센터 604호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	055-904-4004
3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금암동) 3층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063-251-1680
38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80 (옥암동) KT&G 목포지점 4층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061-285-1161
39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강원도사회복지회관 5층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070-8766-9496
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화북일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064-702-3782

*출처 : 법무부 법률홈닥터 http://blog.naver.com/homedoc2013

글·사진 박진혜

장인정신 담은 자활사업, 희망으로 비상하다

인제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낭구소리' 박영식 명장

예부터 청정자연 속 울창한 산림에서 질 좋은 나무를 얻을 수 있어 목공예가 유명한 강원도 인제. 특히 이곳의 목기는 600여 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 으뜸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그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박영식 명장은 인제지역자활센터 목기사업단을 이끄는 수장이기도 하다.

낭구소리
인제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으로
다양한 종류의 목기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한석산로 176

인제지역자활센터 목기사업단을 자활기업 '낭구소리'로 발전시킨 박영식 명장

자활, 공예가의 삶을 마르지 않게 하다

모든 나라나 지역의 들목에는 그곳을 상징하는 산물이 있듯 인제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는 목공예 갤러리가 자리해 있었다. 이곳은 인제에서 활동하는 목공예가들이 모여 만든 작업 공간이자 전시공간. 박 명장도 그 중 한 명의 작가다.

갤러리 문을 열자 은은히 풍겨오는 나무 냄새가 개량한복을 입은 박 명장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고, 통유리로 된 전시관 벽면으로 스민 햇빛에 목기들은 반짝반짝 윤기를 내느라 바빴다.

현재 활동하는 작가 7명의 목기 작품들이 갤러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기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그 빛깔도 모양도 묘하게 달랐다. 또 목재 그대로의 투박함이 보이다가도 어디 하나 매끄럽지 않은 구석 없이 정교함이 느껴졌다.

20대 초반, 친구를 따라 시작하게 된 목공예는 박 명장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작가를 꿈꿔 문학만을 벗 삼아온 그에게 나무를 깎는 고된 작업은 오히려 즐거움으로 다가왔다고. 한 손엔 조각도를, 다른 한 손엔 펜을 쥐고 두 길 모두 포기하지 않은 끝에 박 명장은 공예가와 작가 모두를 거머쥘 수 있었다.

"목공예를 하다 지치면 글을 쓰고, 글을 쓰다 막히면 목공예를 했어요. 오히려 하나만 할 때보다 에너지를 얻더라고요. 공예가의 길을 걸으며 등단을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박 명장에게 두 작업은, 서로 다른 형태의 결과물이지만 인고의 시간 끝에 마치 자식과도 같은 작품이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예술과 문학 모두 업으로 삼아 생활하기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 그가 인제지역자활센터와 손을 맞잡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어렵게 작품을 만들어도 비용 때문에 전시를 못 하던 무렵, 자

활센터에서 함께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어보자며 제안을 해왔다. 박 명장은 당시 자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공예 재료를 제공하고 생활 유지를 도와준다는 센터의 손길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무엇보다 인제목기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겼다고.

박 명장을 필두로 5명의 참여자가 함께한 목기사업단은 그렇게 2011년 4월 출범했다. 그리고 5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난 10월 19일, 사업단은 자활기업으로서의 새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그 행보가 수월치만은 않았다.

위기와 고난을 극복케 한 기다림의 미학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공예가로 산 박 명장이었지만, 생전 처음 조각도를 잡아보는 참여자들을 이끄는 일은 마음 같지 않았다.

"저마다 아픔이 있는 참여자들의 마음을 다독여야 했고,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했죠. 또 칼을 다뤄야 하는 일이라 부주의로 다치지나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어요. 무엇보다 이 일이 그들의 잃었던 자립심과 삶의 의지를 되찾는 동기가 될 거란 희망이 저에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울러 수공예품인 만큼 대량 생산이 쉽지 않아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한 초창기엔 사업단의 존폐를 걱정해야 했고, 유통경로를 개척하는 일은 '맨땅에 헤딩' 수준이었다. 전국 방방곡곡 시장과 행사장을 발로 뛰며 상품을 알리고 판매한 사업단의 노고는 사람들이 먼저 찾는 응답으로 돌아왔다. 물론 그것이 모두 매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인제목기의 우수성과 사업단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 시간은 박 명장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에겐 의미가 매우 컸다. 그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전통을 수호하고 얼을 전파하는 일이었기에 그 가치는 눈에 보이는 수익 그 이상이었다.

그렇게 목기사업단 속에서 작품 활동에 여념이 없던 박 명장은 '2016 대한민국 전통명장'으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이는 목공예 장인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 박 명장 개인의 명예는 물론, 자활사업의 수준과 이미지까지 격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자활사업단에서 만든 상품은 질이 떨어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충 한다는 인식이 너무 속상했어요. 이번 수상으로 어느 정도 그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활사업도 이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근간으로 운영한다는 증명이니까요."

박 명장은 전통 명장이 된 후 더욱 작품 활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부족함 없는 작품만이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장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자활기업을 만들어, 과거 중도에 하차한 참여자들을 모두 모아 함께 일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목공예를 천직으로 여기는 단단함과 어려운 순간을 함께한 이들의 소중함을 아는 따뜻함이 바로 박 명장을 고수로 만든 비법이라 여겨졌다.

박 명장이 매일같이 톱밥을 먹으며 작업하는 목기는, 나무를 재단해 깎고 건조한 후 칠해 완성하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전함지, 귀함지, 동구리 등의 이름으로 탄생한 그의 작품은 10만~50만 원대의 가격을 지닌다. 모든 계절을 통과하는 기다림에 비한다면 과연 비싼 가격이라 할 수 있을까.

박 명장은 마지막으로 목기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단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전했다.

"일이든 삶이든 어느 순간에나 위기는 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꺾인다면 어떤 성장도 없겠죠. 한낱 잘린 나무이던 목재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구가 되듯 풍파를 견디고 기다리면 머지않아 자신이 지금보다 가치 있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버티는 힘의 위력, 기다림 후에 오는 희망을 믿으라는 그의 말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오고 있었다.

박영식 명장의 목기 작품들

글 강석봉(스포츠경향 기자)

‘보도자료’ 보도되게 쓰고, ‘보도사진’ 보고 싶게 찍는 법

보도자료는 보도를 목적으로 기업, 단체 등이 언론(신문, 방송 등)에서 보도할 수 있도록 작성한 뉴스 발표문과 사진을 말한다. 뉴스 발표문은 신문 기사체로 작성되며, 사진은 사진 캡션과 함께 제공된다. 최근 들어서는 동영상 파일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

내용… 보도하고 싶은 것 vs 보도될 만한 것

보도자료를 쓰는 이유는 기자(언론)와 독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상품, 기업, 정책, 미담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기관 등에서 내는 ‘해명자료’도 광의에서는 보도자료에 해당한다.

보도자료 내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야 할까? 답은 뻔하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컨펌하는 사람은 정보의 주체인 기업, 단체 등의 ‘장’(의사결정론자)이다. 결국 그들이 알리고 싶은 내용이 담길 때가 많다. 이런 보도자료를 대하는 기자들은 “우리를 자기들 회사 홍보실로 아는 것 아냐?”라며,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보도자료를 보낸 담당자는 시쳇말로 ‘선수’가 아니다. 해당 정보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과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언론과 대중이 주목을 하게 된다.

뉴스는 신뢰감과 함께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 기자들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최초의’, ‘최고의’ 같은 형용사를 남발한 과장된 보도자료를 뉴스로 다루지 않는다. 광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보도하고 싶은 근거 또는 통계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기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보도자료는 독자에게도 뉴스가 될 수 없다.

보도자료는 제목만 보고 이 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제목은 간명하고 함축적이어야 한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길어야 15글자다. 제목은 그렇게 짧아야 한다.

휴대전화에 대한 보도자료의 경우, ‘세계 최고 기술로 만든 역작’이라고 붙인 제목은 ‘좋지 않은 예’에 해당한다. 그 말은 휴대전화에도 자동차에도 시계에도 쓸 수 있다. 인상적인 제목이 아니다. 이를 ‘세계 최초로 듀얼 카메라를 부착한’이라 설명하면 앞선 제목의 예보다 명확해진다. 가벼운 제목으로는 유행어 등을 이용해도 좋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예로 들어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내용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엉뚱한 제목을 붙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문장… 6개의 단두대, 육단두(6하원칙+단문+두괄식)

보도자료는 단문으로 써야 한다. 문장이 길어지면 내용이 꼬인다. 이를 잘 못 하겠다면, 모든 행에 마침표가 하나씩은 들어가게 문장을 구성한다. 격식을 넘어 격조 있게 보이려고 영어와 한자어를 남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영어와 한자를 쓰더라도 한글 우선으로 병기해야 한다. 특히 해외 유명 장인의 경우, 발음과 표기를 한글 중심으로 전달해야 한다. 해외 유명인이나 지명도 한글 표준안이 있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호나우드’가 아니다. 태국의 유명 여행지 ‘푸껫’은 ‘푸켓’이 아니다. 제목과 문장은 문어체보다 구어체가 부드럽게 읽힌다. 난해한 전문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일상어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문장 구성은 첫 문장인 리드(lead)에 전체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작성해야 한다. 두괄식이 적합하다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앞부분에 쓰고 뒤로 갈수록 덜 중요한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 기자의 흥미를 당기는 것은 물론, 편집자가 문장이 길 경우 뒤부터 자른다는 제작 방식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보도자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6하원칙은 뉴스보도의 기본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1뉴스 1팩트'로 보도자료를 꾸민다면 기자들에게 좀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긴 보도자료의 경우, 본문과 해설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보도자료가 A4용지 2장을 넘기면 난해하고 지루해 보인다. 다만 전문지나 잡지의 경우는 긴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 매체의 성격별로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된 인물의 코멘트를 보도자료에 넣는 것이다. 보도자료에 " " 같은 인용 부호를 넣어 사장, 임원, 개발책임자, 기관장의 코멘트를 넣으면 기자와 독자가 내용에 신뢰감을 갖게 된다.

보도자료는 한글, MS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JPG 파일로, 보도자료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로 제공하면 된다. 보도자료를 멋지게 꾸미기 위해 PTF파일로 만들거나, 압축파일로 요란하게 만들면, 기자는 압축파일을 풀기 위한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보도자료에는 반드시 발표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또는 이메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언론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 요즘에는 보도자료에 웹사이트와 간단한 회사 소개까지 붙이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보도사진… '미아동'에서 찍어라

사진이 첨부된 보도자료는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보도자료보다 보도될 확률이 높다. 대개 사진은 사진기자와 언론사 내부 데이터베이스 자료사진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뉴스 배포처가 배포한 사진을 쓰기도 한다.

뉴스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삽입하면 뉴스의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다. 사진은 전문가가 촬영한 사진을 쓰는 것이 좋다. 인물이나 물건을 찍는 경우에는 조명에 따라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므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사진 원본에 워터마크로 관련 회사의 표식을 넣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기자들이 아예 쓰지 않을 수 있다. 참고 이미지 자료로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한 그래픽이나, 연도별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 및 도표를 준비하면 기자의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다.

홍보 담당자가 보도자료 사진을 직접 촬영해야 한다면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자.

사진에는 '이야기'나 '정보'가 담겨야 한다.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행동하고 있는 사진이 좋다. 제휴 관련 보도사진이라면 양사 회사 임직원들이 현수막 아래서 기념촬영하는 콘셉트로 연출하기보다는 약정서를 들고 서로 악수하는 모습이 훨씬 좋다. 신제품을 알리는 보도사진은 피사체만을 찍기보다 사람을 등장시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광고사진에는 언론이 주목하는 '미아동' 법칙이 있다. '미아동'은 '미인(Beauty), 아기(Baby), 동물(Beast)'의 앞글자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3B' 법칙이라고도 한다. 이 콘셉트를 차용하면 더없이 좋은 보도사진을 연출할 수 있다.

사진 설명도 6하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등장인물을 순서에 입각해 표기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보도자료에 첨부되는 사진은 5장 정도가 적당하다.

"보도자료는 해당 정보에 대해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과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좋다"

정리 한보라

2016년, 지역자활센터 식구가 늘었습니다

6개 신규 지역자활센터 개소

2016년 말 기준, 지역자활센터가 251개로 늘었습니다.
어떤 지역자활센터가 추가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8월 29일(월) 중앙자활센터에서 진행한
'2016 신규 지정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실무교육'
참석자분들을 촬영하였습니다

1

철원지역자활센터

주소 강원 철원군 호국로 5014

Ⓣ 033-452-0912 Ⓕ 033-452-0913 센터장 이영철

- 설립일 : 2016년 2월 1일
- 직원수 : 5명(센터장, 실장, 팀장 2명, 대리 1명)
- 운영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모을동비

"참여주민들과 함께하는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2

의성지역자활센터

Ⓗ http://www.us-jahwal.or.kr/jahwal

주소 경북 의성군 의서읍 안평의성로 1122-36

Ⓣ 054-833-1225 Ⓕ 054-844-1224 센터장 김옥희

- 설립일 : 2016년 2월 17일
- 직원수 : 4명(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2명)
- 운영법인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농촌지역 및 읍·면
자활근로 사업 진행으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분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 센터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등 내·외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3

서초지역자활센터

Ⓗ http://www.seochojahwal.or.kr

주소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9길 1-3(신원동 271-21)

Ⓣ 02-2058-0790 Ⓕ 02-2058-0788 센터장 전명재

- 설립일 : 2016년 5월 1일
- 직원수 : 5명(센터장, 실장, 사회복지사 3명)
- 운영법인 : 서초구청

"자활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며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4

이천지역자활센터

주소 경기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290번길 14

Ⓣ 031-631-0199 Ⓕ 031-631-7199 센터장 김영호

- 설립일 : 2016년 5월 2일
- 직원수 : 5명(센터장, 실장, 팀장 3명)
- 운영법인 : 이천시청

5

구례지역자활센터

주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로터리길 9

Ⓣ 061-780-2900 Ⓕ 061-781-8481 센터장 장연희

- 설립일 : 2016년 7월 1일
- 직원수 : 5명(센터장, 실장, 팀장 3명)
- 운영법인 : 구례군청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 종촌종합복지센터 내

Ⓣ 044-865-7870 Ⓕ 044-865-7872 센터장 정성욱

- 설립일 : 2016년 7월 7일
- 직원수 : 4명(센터장, 실장, 팀장 2명)
- 운영법인 : 세종특별자치시

"자활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한다는
처음의 마음처럼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터뷰

김옥희 센터장

의성지역자활센터

글·사진 한보라

지난 10월 신규지역자활센터 중에 '의성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님을 만났다.

의성지역자활센터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저는 상주지역자활센터에서 약 12년간 근무해오다가 올해 2월 의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시에 있다가 군으로 오다 보니, 처음엔 많이 낯설더라고요. 의성은 농촌에다 땅콩 모양으로 지역도 넓고, 평균 연령이 60세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에요.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개발하자는 생각을 갖고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센터를 처음으로 세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오셨나요?

센터에 처음에 왔을 때는 책상 하나, 노트북 하나가 전부였어요. 인터넷 연결도 안 되어 있어서 난감했죠. 제일 먼저 한 것은 참여주민분들 정보 등록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의 연결이었죠. 그러다보니 시설허가, 사업자등록증, 운영지정서 등 행정적인 작업에 한 일주일 정도 매달렸어요. 이후 3월부터는 읍·면에 있는 동사무소를 다 찾아다녔지요. 그 당시 직원 한 명을 채용했는데 예산이 나오지 않아 인건비, 사업비 없이 약 2개월 가량 고생했죠. 4월 초에는 복지담당 공무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4월 29일 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5월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본격적인 사업은 6월부터 시작되었어요.

바쁘게 사업들이 진행되었네요. 현재 센터의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 44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계세요. 사업은 6~9월까지 약 4개월 간 진행해온 것인데요, 6개 사업단이 운영중에 있으며 매출액을 보면 깜짝 놀랄거예요.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곳이 많지만, 높은 매출을 내고 있고 방송을 연계해서 2개 가구에 각각 1000만 원씩 후원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2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앞으로도 먼 것 같아요.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내일키움통장도 가입시켜야 하고, 나중에 평가도 받아야 하니 더 열심히 해야겠죠?(웃음)

지금까지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먼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군수님한테 업무 브리핑을 제가 직접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해주고 있는 덕분이라고 봐요. 주민분들과 함께 양곡 배송을 하면서 지역사회도 익혀나가고, 현장에서의 훈련을 돕고 있지요. 센터장으로서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지금 일하는 직원들과 종신계약이라도 맺고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의 센터장님의 바람은 무엇이신가요?

저는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을 나와 같은 동료로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의 희망일터'를 만들어나가고 싶은 바람 입니다. 또한 현재 군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싶어요.

저소득층의 희망일터로 거듭나고 있는 의성지역자활센터

정리 우아미 · 사진 한보라

탈빈곤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 되었다

빈곤층 자립지원, 제3회 자활복지 국제포럼

중앙자활센터는 2012년부터 국내 탈빈곤 자활 지원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격년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에 개최한 제3회 국제포럼 주제는 '빈곤정책의 미래를 만나다'로 자산형성, 사회적 경제, 고용복지연계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주제별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자.

1 빈곤탈출 경로의 탐색 : 포용적 정책으로서의 저소득층 자산형성 정책 방향

마이클쉐라든 교수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

글로벌경제는 불평등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빈곤층으로 불리는 계층이 형성되었다. 20세기에 만들어낸 사회정책은 현재의 저소득층과 미래 사회 및 경제에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궁극적인 사회정책의 목표는 낮은 임금으로도 가족이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산형성정책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는 보편적(universal)이고, 누진적(progressive)이며, 생애전체적(life long)이어야 한다. 모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정책 및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아동발달계좌(CDA)야 말로 보편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산형성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자산형성정책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선별적인 대상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선별과 보편 중 어떤 방식으로 정책(사업)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

볼프 라이너 벤트 교수
DHBW슈투트가르트대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근본은 사람의 복지를 돌보는 경제, 즉 필요에 기반한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의 복지와 생활의 필요를 다루기 때문에 소규모 조합활동에서 점차 (사회적)기업, 비영리(사회복지)로 범주가 확장되었다. 이 확장된 개념의 사회적경제는 복지혼합 경제로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하르츠 개혁 이후 저소득층의 복합적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복지 혼합 경제가 작동하게 되었다.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하르츠 개혁으로 실업률은 줄었으나 저임금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인해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직업소개소들은 건강, 중독, 교육, 부채 상담 등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가 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통합)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의 필요성은 노동과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복지에 대한 투자임을 이해해야한다.

3 탈빈곤을 위한 고용복지연계모델의 변화와 과제

고이시 노리미치 교수
오사카시립대

일본의 취업지원사업은 중앙정부(헬로워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지자체의 권한이양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ILO조약을 근거로 반대해 왔으나 2016년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무료직업 소개가 가능해졌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등)지원사업은 2015년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시행으로 법제화되었다.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는 상담지원 담당자가 취업지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회복지사가 많다는 점, 상담지원과 취업지원 사업자가 별도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단계적 지원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취약계층에게는 고용과 복지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 교토자립취업서포트센터 사례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함께 연계하여 효과성을 도모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1 국내·외 빈곤 관련 조직 관계자, 자활센터 실무자 등 200여 명이 참석
2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서
보편적, 통합적인 정책으로
혁신이 필요합니다"

글 · 사진 한보라

INTERVIEW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 마이클쉐라든 교수

국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마이클쉐라든 교수'를 따로 만나 독자가 궁금해 할 부분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문일답으로 그 내용을 소개한다.

Q 빈곤과 자산형성 흐름에 있어서 현재의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는지요?

A 최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우, 일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산형성지원(IDA)은 정책논의에 있어 종결지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Q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민간 기부금으로 시작하다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업 예산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발전역사를 보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간재원이 투입 되었다가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공공정책이 되는 흐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민간기부금에서 공공정책으로 전환된 부분, 지자체의 책임에서 중앙정부로 책임이 넘어온 부분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Q 현재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약 2천여 만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답변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령금액은 정책 목표에 맞추어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자산형성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싱가폴'일텐데요, 아동시기에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성인기까지 포함하면 약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축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한국은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모아진 금액을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사용용도 제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기본적인 생계유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생계유지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경우, 국가의 금융시스템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요?

A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저소득계층이 금융 시스템에 접근 가능토록 하는 목적의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정한 자산을 제공하고,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금융시스템과 연계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경우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될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사회정책에서 발생되는 부분으로, 논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산형성지원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마이클쉐라든 교수

Q 통장해지 이후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별도의 사례관리자를 두고 있는데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A 먼저 ‘사례관리’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 가정이나 사회 안전망을 위해 사례관리의 방법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별도의 사례관리자를 두고 있는 것은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한국의 자산형성지원 사업들이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많은 것을 이미 터득했고, 앞으로의 방향도 잘 모색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 정책시스템의 일환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보험이 대국민 정책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한보라

삶의 발판이 되어주는 편의점 사업 ‘CU 새싹가게’

**고객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무엇일까.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수한 자활상품을 상시 판매 및 홍보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마케팅에 대한 고민이 CU 새싹가게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싹틔우고 있다.**

고양지역자활센터 박종운 실장

2010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정식 출범한 ‘CU 새싹가게’는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16개까지 늘어났다. ‘CU 새싹가게’는 BGF리테일이 편의점 CU의 가맹 시스템을 자활근로사업에 활용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용과 창업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CSV(공유가치 창출) 모델이다. 자활사업에 CU(씨유)의 창업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우연한 기회로 사업 시작

실장님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지 12년. 그동안 여러 사업단을 운영해 보았으나 늘 고민되는 부분이 마케팅이었다. 그러다 창업박람회에서 CU 개발팀 담당자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2010년 BGF리테일-고양지역자활센터 간에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BGF리테일은 CU 편의점 점포를 자활사업 참여주민에게 저렴한 투자금으로 제공하고 참여주민은 편의점 창업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박종운 실장은 “고민 속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도이자 기회”라고 말한다.

우여곡절을 이겨내며 하나씩 추진

자활사업 영역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편의점 사업이다 보니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위약금이 포함된 계약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검토하는 일에서부터 편의점 특성상 연중무휴, 24시간 근무 등 근로여건, 수익구조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특히 입지를 선정할 때는 주민분들의 출·퇴근 접근성, 안정성까지 염두하다 보니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었다.

“자활근로를 할 때에는 3일 동안 12시간 근무, 3일 휴무로 진행했는데 당시 지자체와 센터에서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해주신 덕분입니다.”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 중

CU 새싹가게 시초인 ‘CU 함께여는가게’가 운영된 지 어느 덧 6년. 초기부터 참여한 6명의 주민분들이 지난해 ‘CU 함께여는가게’ 1, 2호점에서 약 21억5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 실장은 “편의점 관련 경험이 없는 분들이 모여 지금까지 애를 많이 쓰셨다”며 “앞으로 3호점 오픈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CU와의 계약은 2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자활사업만의 영역을 만들 계획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박 실장은 내부적으로 점포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들고, CU 브랜드와 자활 생산품을 결합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CU 새싹가게를 통해 자활 생산품 및 서비스와 일반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기를 희망 합니다.”

시장에서 자본에 관련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서 자활사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참여주민 인터뷰

김영미 대표

2010년부터
'CU 함께여는가게'의
점주를 맡고 있다

어떤 계기로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처음엔 편의점 사업에 대해 잘 모른채 얼떨결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왠지 낯설고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고민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실장님이 초기에 함께 밤도 새 주시고,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주신 덕분에 동료분들과 함께 힘을 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지금은 뚝딱 잘 맞춰가며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일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나요?

편의점에 손님들이 오게끔 본사에서 기프티콘, 게임머니 등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다 보니 해야 할 시스템이 생각보다 많아요. 새로운 시스템을 습득하는 것과, 주말에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2호점의 경우 주변이 유흥가이다 보니 밤에 술 취한 손님을 상대해야 하거나, 손님들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부분도 쉽지 않아요.

힘드셨겠어요.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편의점에서 일하기 전에는 '영농사업단'에서 다육식물 키우는 것을 했어요. 밖에서 햇빛을 받으며 일하다 보니 얼굴이 까맣게 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느꼈었죠. 그런데 이곳은 실내에서 일하니 그야말로 '지상낙원'인 것 같아요. 어려운 순간들마다 더 어려웠던 그때를 생각하며 이겨 내고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보람되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어 저희 직원들이 월급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을 때가 기억 나네요. 최근에는 직원분들의 동의를 얻어 지역 내 어려운 분에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받은 것을 나눠줄 때가 기쁘죠. 편의점이 학생들에게 함께 이야기 나눌 공간이 되어주고, 제가 살아갈 삶의 발판이 되어주니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곳에서 CU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인 것 같아요. '내 할일만 한다, 근무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마음가짐 보다는 '함께 배려하며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활은 항상 함께하는 것이니, 서로가 도우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활읽기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사업단 혹은 자활기업이 있다면
중앙자활센터 '자활읽기'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글 성연민 · 사진 류근철

중앙자활센터와 최우수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는 선진국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호주를 방문했다

호주에서 만난 자활사업

– 201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해외연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의 변화 흐름에 맞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자활센터가 이번 연수에 동행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을 기관별로 소개한다.

이번 연수는 10월 31일 시작해 4박 6일 동안 호주(Australia)에서 진행됐다. 여러 여건상 참여인원이 축소되어 11개 최우수 기관의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분들이 함께 참여했다. 연수기간 내내 호주의 날씨가 우리나라 봄의 끝 무렵과도 비슷해서 쪽빛 하늘의 맑은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함께했다.

우리는 호주의 사회보장정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알아보고, 복지조직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했다. 그 중 대표적인 4개 기관을 차례로 소개한다.

기본권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시드니 시청이다. 시청 자활지원과는 시드니 전체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근본적인 치료와 지원을 하고 있다. 홈리스 관리, 길거리 청소 등 환경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 홈리스 개개인의 건강, 경제, 직업, 주

거 제공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홈리스들의 올바른 사회 적응 유도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다.
사진 속에 보이는 키 큰 공무원 아저씨는 길가의 노숙자와 마주앉아 이야기 나누고, 오늘은 누가 안 보이는지를 체크하고, 주변의 휴지도 주우며 하루 종일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한다. 세심한 배려를 기본으로 여유 있게 즐기시듯 일하는 그분이 살짝 부러웠다.

작은 목소리도 크고 힘있게 전하고 무게 있게 듣는 사회

두 번째 방문한 뉴사우스웨일스 사회보장위원회(Council of Social Service of NSW. NCOSS)는 따뜻한 차와 쿠키,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을 준비해 우리를 맞이했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내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립됐으며, 빈곤, 불평등에 대한 사회정책 제안 및 검토,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다.
"작은 목소리는 힘이 없어 멀리까지 전달되지 않지만, 그 목소리들을 모아 크게 만들어 전달한다면 주 정부에서도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목소리의 중요성 판단, 전달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부분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희망의 씨앗을 싹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이어 방문한 메니 리버스 마이크로 파이낸스(Many Rivers Micro Finance)는 지역의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창업 등의 자활자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교육, 경제, 생활이 낙후된 주민을 대상으로 창업 시 필요한 사업 타당성 분석, 경영컨설팅 지원, 부채 상담을 진행한다. 각 분야 전문가의 재능기부, 정부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재무컨설팅, 로펌, 시중은행에서의 대출 등 연계도 추진한다.
현재 교포 2세가 실 담당자로 있는데, 사업 내용을 유창한 한국어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원 스톱 복지가 이루어지는 센터링크

마지막으로 방문한 센터링크(centrelink)는 한국의 사례관리처럼 아동, 노인, 실업자, 이주민, 난민 등 호주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 가족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바쁘게 보였다.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어서 그런지 친근감이 느껴진 곳이었다.

연수를 진행하면서 길가나 공원에서 햇살을 즐기는 홈리스들의 모습이 왠지 여유 있어 보였다. 외국인이라 그렇게 느꼈던 것인지, 그 여유를 사회가 만들어주어서 그런 것인지 생각이 많아졌다. 앞으로 한국의 자활사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고 멀리 보는 큰 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작은 목소리라도
함께 힘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

1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뉴스우스웨일스 사회보장위원회 담당자들
2 이번 해외연수에 참여한 자활센터 실무자들이 센터링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 홍은심(동아일보 기자)

건강한 겨울나기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기상청은 올해 라니냐의 영향으로 때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고,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추운 날씨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해야 하는 겨울철 건강관리법을 소개한다.

실내 환기는 하루 세 번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엔 환기가 중요하다. 춥다고 창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각종 먼지와 진드기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이에 내부 환기를 자주 하며 실내가 조금 서늘하다고 느껴지는 온도 20~22℃로 유지해 세균 증식을 막아야 한다. 사무실이나 집안 등 실내에서는 3~4시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해주는 것이 좋다.

숯을 활용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숯에 포함된 탄소가 음이온을 뿜어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 감기는 추위보다도 건조한 환경 탓에 더 많이 걸리곤 하는데 환기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갈증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겨울에는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데,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혈액순환이 어려워 뇌와 근육 활동에 지장을 준다.

하루 수분 섭취 권장량은 1.5L, 적어도 일반 컵으로 하루 8잔은 마시는 게 좋으며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마시는 것이 포인트다. 아침에는 4~5℃의 찬물을 섭취하면 입안에서부터 식도와 위를 자극해 소화장기에 활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오후와 저녁에는 체내 흡수율도 빠르고 내장기관의 원활한 활동을 도와주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다.

손은 항상 청결하게

휴대폰, 쇼핑카트, 버스 손잡이 등에는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세균들로 가득 차 있다. 겨울의 대표적인 불청객 감기 역시 대부분 손으로 전염되곤 하는데, 손만 잘 씻어도 세균·바이러스성 질환들을 최대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외출 후에는 따뜻한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다. 손을 씻을 때는 손바닥만 대충 씻으면 손톱 주변의 세균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니 손등과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신경 써서 닦아 관리해야 한다.

오전·오후 간단한 스트레칭

우리 몸은 날씨가 추워지면 몸의 균형을 지키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때 면역력도 함께 떨어진다. 겨울철 실외에서의 격렬한 운동은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겨울철 실내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벼운 걷기나 제자리 뛰기 등을 포함해 실내에서는 기지개 켜기, 목 뒤로 젖히기, 한쪽 발을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리고 상체 틀어주기 등의 동작만 틈틈이 해도 우리 몸의 근육들을 자극해 면역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체온 유지의 적, 흡연과 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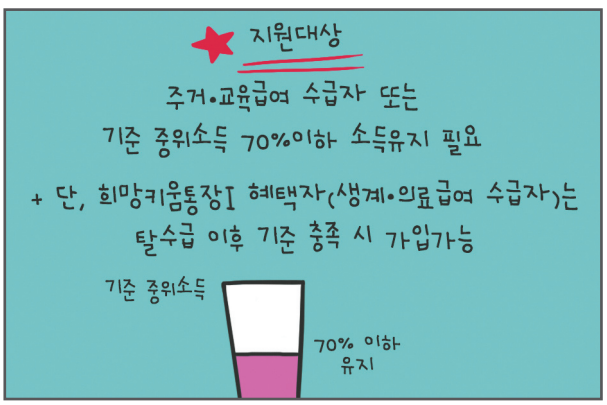
우리 몸의 체온이 1℃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가까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처럼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건 체온 유지이다. 체온이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향상되는 이유는 몸의 순환과 관련이 있는데, 체온이 상승하면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세포 활동을 촉진해 신진대사가 매우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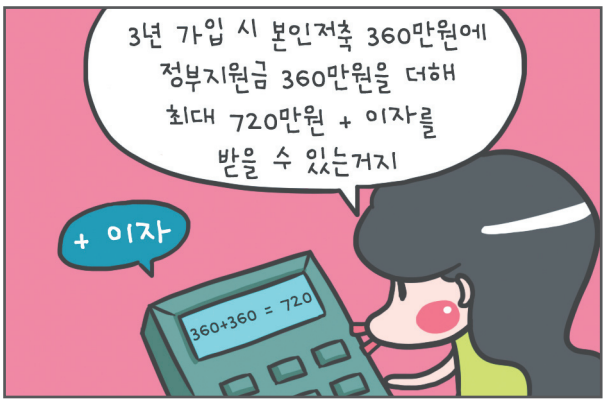
이에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흡연과 과음은 겨울엔 더 해로운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 체온을 상승시키는 데는 숙면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을 가까이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림 김현진

자활 열전

제3화
희망키움통장Ⅱ편




3년 가입 시 본인저축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최대 72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거지
+ 이자
360+360 = 720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증빙기준이 완화되어,
위에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의 50%이상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증빙서류
지원금!

저축한 금액이 2배가 된다니,
저소득층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을 받으려면
지자체(민간위탁기관)가 실시하는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4회 이상 참여해야 돼~
교육
상담

그 돈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거야?
아니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
1. 주택구입•임대
2.본인•자녀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3.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4. ISA 계좌상품 가입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

내년 3,6,9월에 모집하오니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주민센터

글 김연수(IFTA 푸드테라피스트협회 대표)

겨울철 면역력 높이는 음식 옐로 푸드가 답이다!

겨울철 건강관리의 핵심은 면역력이다. 추위로 저항력이 떨어져 자칫 없던 병도 생길 수 있으니 무엇보다 몸을 튼튼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지키기는 바로 음식 섭취. 겨울철 우리 몸을 챙겨줄 똑똑한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겨울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옐로 푸드와 균형 있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우리 몸은 추워지면 장기와 근육이 경직돼 가장 먼저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 그 결과 혈압이 갑자기 치솟고 혈관에 피떡이 껴서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요로결석 등에 걸리기 쉽다. 또 체온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느려져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당뇨 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실천이 필요하다.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면역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위로 약해진 저항력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의 마늘, 양파, 고추, 인삼, 생강 등을 자주 섭취하면서 면역 세포 형성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챙겨 먹고, 돼지고기는 삼겹살보다는 기름기가 적은 목살 부위가 좋다. 더불어 고등어, 삼치, 연어, 장어 등 생선류와 계란, 두부, 청국장, 굴, 전복, 새우 등의 단백질 섭취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겨울철 저항력을 높이려면 재생력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을 반드시 함께 챙겨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겨울철 제철식품으로 항산화 기능이 높은 옐로 푸드를 추천한다.

늙은 호박

호박은 고혈압을 안정시켜주며 노화를 억제하고 암과 심장질환, 뇌졸중 등을 예방해준다. 호박에 풍부한 영양소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하고 세포의 재생력을 높여준다. 호박엔 비타민E도 많아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어깨결

림, 두통, 수족냉증을 개선시킨다. 호박은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져 겨울철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호박 중에서도 특히 늙은 호박은 '겨울보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늙은 호박에 풍부한 루테인은 눈 피로와 시력 저하 개선에 효과적이다. 또 호박에는 포도당의 전구체인 당질이 풍부하며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 있어 장 건강에도 좋다.

감

감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몸의 기능이 위축된 데다 운동량까지 부족해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주 피로감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여성들의 경우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되는데 무시하게 되면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쉽다. 또한 피부도 거칠어지고 건조해져 건선이나 버짐 등 각종 피부 트러블에 시달리기 쉽다. 그런데 감에는 피로 해소와 염증완화에 효과적인 탄닌 성분과 비타민C가 감귤류의 2배로 풍부하다.

흙당근

당근은 사계절 구할 수 있으나 흙당근은 겨울 제철식품이다. 당근에는 혈압 강하 작용이 있는 칼륨과 정장 작용이 있는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다. 특히 당근은 폐암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립보건원의 아르멜그누그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44세 1200명가량을 대상으로 8년간 폐 기능 약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당근을 자주 섭취한 그룹이 당근을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폐 운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당근은 보온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며 소화불량, 설사 등에 효험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당근의 조리법이다. 당근은 기름에 조리해 먹으면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60~70%로 더 높아진다.

귤, 오렌지, 한라봉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오렌지나 귤의 헤스페리딘 성분이 몸속에서 나쁜 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 또한 귤 껍질과 오렌지 씨에 함유된 리모노이드란 성분은 발암물질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높다고 한다.

귤은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식품에서 발생하는 유해 생성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도 한다. 또한 귤 껍질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한방에서는 주요 약재로 쓰인다.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말린 다음 귤차의 재료로 이용하면 더욱 좋다.

한라봉은 양질의 당분이 풍부해 뇌의 혈액순환을 돕는다. 몸안에 노폐물이 쌓여 몸이 쉽게 붓는 사람에게 좋다. 한라봉은 과일인 만큼 요리하기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좋다. 껍질이 얇은 게 대체로 당도가 높다. 반면 껍질이 들뜨거나 껍질에 주름이 많은 것은 오래된 것일 수 있으며 신맛이 강하거나 싱거울 수 있다.

맛나게 먹으려면

구운 단호박 샐러드

• 재료

단호박 약 1/4, 어린잎채소 한줌, 견과류(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 다진 것 1큰술, 건크랜베리 10개,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 허니드레싱

꿀 1/2큰술, 다진 양파 1큰술, 소금 1/2작은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레몬즙 1큰술, 올리브유 1큰술

• 만드는법

① 단호박을 잘 씻은 후 속의 씨를 제거하고 웨지 모양으로 썬다.
② 소금, 후춧가루를 뿌린다.
③ 오일을 발라 팬에 굽는다.
④ 어린잎채소는 찬물에 씻은 후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⑤ 견과류는 굵게 다진다.
⑥ 접시에 단호박, 어린잎채소, 건크랜베리와 견과류 다진 것을 넣고 드레싱을 뿌리면 완성.

정리 한보라

중앙자활센터 NEWS

9개 자활센터 13개 상품을 우수자활생산품(굿’스굿스)으로 선정

우수자활생산품은 좋은품질의 좋은상품이라는 「굿’스굿스」 브랜드를 사용하게 됐다.

* 안동 녹색드림(재래식된장,매실고추장), 강진 조청(강진다산조청세트), 부천소사 미래희망수미인(천연인견때타울, 인견장타울), 평창 예쁘미(메밀차하담), 광진 더나눔커피(원두커피), 대전동구 착한말랭이(고구마말랭이), 우만 채움늘터(민화앞치마), 영등포 구수미누룽지(구수미누룽지), 김제 아랫목(황금청국장, 청국장가루, 현미쌀과자)

제3회 자활사례관리 컨퍼런스 개최

자활사례관리 공모를 통해 14개 자활센터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례공유도, 참여자별 목표수립의 적정성, 사례관리과정 준수여부 등을 심사했으며, 사례발표회를 가졌다.

* 최우수(부산동래) / 우수(전북군산한마음, 충남보령, 경기부천원미) / 장려(서울양천, 부산해운대, 부산북구, 대구북구, 인천남구, 인천부평, 광주북구희망, 경기화성, 전북익산, 경북포항나눔)

자활인큐베이팅 트랙 실무자 워크숍 개최

11월, 전국 27개 자활인큐베이팅 실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업내용 설명, 분임토의 등을 통해 사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했다. 신규 자활사례관리 및 인큐베이팅 선정지역은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 자활유공자 포상 및 자활수기 당선자 시상

자활현장에서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애쓰신 자활유공자 93명, 자활성공 및 공로수기 당선자 29명에 대한 시상이 12월 개최됐다. 제8대 자활명장으로 행복하계협동조합 이순옥 상임이사가 선정되었으며, 자활수기 대상은 ‘성공의 계단 오르기’ 제목으로 홍미화(강원)씨가 수상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 오려서 사용하세요

자르는 선 ——

접는 선 - - - - -

<겉표지>

To

From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지>

중앙자활센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의 순간,
숨 가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KBS 1TV
매주 일요일
저녁 8~9시

중앙자활센터는 KBS 1TV '강연 100℃ 라이브' 업무협의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강연자로 우선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연 100℃ 라이브'는 우리 이웃의 소소하고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중앙자활센터 담당자(T 02-3415-6914)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활읽기 희망이 가득한 자활사업 이야기

중앙자활센터